

경제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개시

채권단 결정... 3개월간 채무 유예키로

아시아나 지분 석유화학에 매각 논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절차)이 개시됐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6일 오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 회의를 열어 75% 이상 찬성으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도 이날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협의회를 개최해 96.1% 찬성으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개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4~5명으로 구성된 경영관리단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각각 파견키로 했으며, 실시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기업과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어떻게 진행되나=채권단은 오는 3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금호산업의 채권을 유예하고 신규자

안, 구조조정안 등이 담긴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노조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시아나 지분 '불씨' 남아=이날 채권단회의에서는 금호산업이 지난달 21일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33.5% 가운데 12.7%(2천227만주)를 주당 4천275원(952억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것이 문제가 됐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금호산업의 핵심 자산이 워크아웃 직전에 금호석유화학에 넘어가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 매각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에 넘긴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와는 별도로 추후 산업은행과 금호산업과 협의해 아시아나 주식이 금호산업으로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우리은행의 주장처럼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산업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은행과 금호그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채권단간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계열사 지분 거래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지역 각계 금호 회생 한목소리=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호남 지역민의 걱정과 위기가 크다"며 "고용 창출 위기, 투자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생활동지 저하, 사회공헌활동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채권단의 광범위한 지원과 긍정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역경제와 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도 잘해봅시다"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재)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박경태 광주시장, 강박원 시의회위원장, 남한일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광주지역 산업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덕봤네'

말바우 시장 등 아케이드 설치·주차장 조성... 매출 늘고 빈점포 줄어

아케이드 설치, 공용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광주지역 재래시장의 빈 점포가 줄어들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의 경우 지난해 29억원으로, 차량 7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한 뒤 상인회 가입 점포가 150곳에서 4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 간 34억원을 투입해 공용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점포 리모델링사업 등을 마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은 빈 점포가 기존 30곳에서 4곳으로 급감했다.

말바우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 이후 매출이 30% 정도 늘어났다"며 "상인회에 가입할 경우 주차료를 50%까지 할인해주면서 상인회 가입점포가 주차장 조성 이전 150개 점포에서 410개 점포로 늘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곳의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62억원을 지원, 말바우시장 등 11곳에 2천5백여의 주차장, 양동시장 등 9곳에 아케이드 설치, 대인

시장 등 5곳에 화장실 정비 및 소방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도 83억원으로, 북구 '자동차의 거리', 남구 봉선시장, 동구 '전자의 거리' 등 3곳의 재래시장과 특화거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외에도 배달 마지막 주 금요일 공공기관 '장 보는 날' 운영, 전통시장 내 문화이벤트 추진, 상인들에 대한 소액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멧돼지 사냥' 보험은 들었나요

수렵인구 급증 불구 보험 가입률 45% 저조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다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간 발생한 수렵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215건이고, 지급된 보험금은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별로는 타인 사망과 본인 사망이 각 1건이었고 가축 피해 89건(41.4%), 본인 상해 58건(27.0%), 타인 상해 28건(13.0%), 사냥개 사망·부상 22건(10.3%) 등이었다.

보험금은 타인 사망에는 8천500만 원, 본인 사망은 3천만 원,

광주지역 노래방 이용료 담합 제재

광주공정거래사무소

광주 지역 노래연습장 업자들이 이용료를 임의대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사단법인 한국노래연습장중앙회 광주시지회가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회원업소들이 따르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공정위 의견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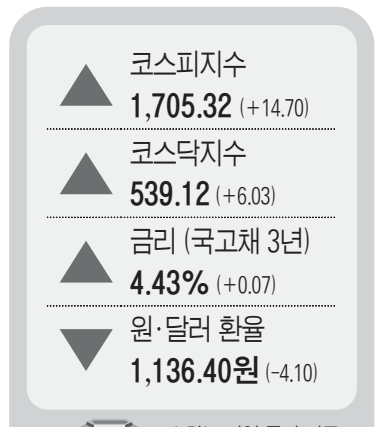
광주시지회는 지난 2007년 8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가 인상 등을 이유로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인상키로 하고, 각 지역 대표들에게 지역사정을 고려해 최종단가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각 지역 대표들은 지역 회의를 열어 일반실은 30분에 1만 원, 1시간에 2만 원, 특실은 2만5천~3만 원, VIP실은 3만~3만5천원으로 책정했

다.

광주사무소 신현태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노래방 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단가를 부당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광통신업체 매출 급신장

해외시장 확대 영향 '매출 100억원 클럽' 20개로

광주지역 광통신업체들이 지난해 해외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신장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100억원 클럽' 가입 업체 수도 20개로 전년에 비해 2개 늘었다.

6일 광주시에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일본, 유럽, 중동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광대역통신망구축을 확대하는데 힘입어 FTTH(Fiber To The

Home)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FT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광주지역 광통신업체들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매출 100억원 대를 보였던 오이솔루션과 휘라포토닉스가 각각 200억원 대를 올렸으며, 글로벌 광통신의 경우 지난해 매출 100억원 클럽에 새롭게 진입했다.

특히 FTTH 설비 부품 중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스

플러터 생산업체인 피코아이, 우리로 광통신, 휘라포토닉스, 옵테론 등이 주문량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이르자 최근 신한포토닉스가 플러터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초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인 글로벌광통신에서도 생산설비 점검에 들어가는 등 업체들의 설비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도 뉴질랜드 정부가 발주하는 12억 달러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사업(브로드밴드 프로젝트)에 광주지역 6개 광통신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지난해 말 뉴질랜드 기간통신사업 4개 업체가 광주를 방문해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등 동반 성장에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1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우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면시책/월매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사채/상가	주택수령금 010-4840-2142	공방/포차	광역시 010-5679-8005
소매지 대지/건물 면적/연면적 보증금/잔금 매각가/최저가 비고	소매지 대지/건물 면적/연면적 보증금/잔금 매각가/최저가 비고	소매지 대지/건물 면적/연면적 보증금/잔금 매각가/최저가 비고	소매지 대지/건물 면적/연면적 보증금/잔금 매각가/최저가 비고	소매지 대지/건물 면적/연면적 보증금/잔금 매각가/최저가 비고	소매지 대지/건물 면적/연면적 보증금/잔금 매각가/최저가 비고

분양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펠리스타워빌딩

1층: 약국, 케피전문점, 골프용품, 유아용품,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펠리스레스토랑, 전문식당, 유아용품,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어, 수학,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옆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원대리점(35㎡, 4호선) 3층 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 옆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 옆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13,200㎡ (약 4,000평)
■ 건물: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 (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 (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상담 후 결정(응자 30억 포함)

010-3617-8810